

농가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화

김 외 숙(방송대 교수)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시간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이 주로 도시노인에 초점을 맞추어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온 농가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농가노인의 시간일지표 및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행동은 동시행동을 제외한 주행동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된 시간일지는 평일용 715부, 일요일용 457부이다. 농가노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군집간의 차이 검증 및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 개인월평균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을 축으로 농가노인의 생활시간배분을 유형화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균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평일에는 균형형(32.9%)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이 일중심형(31.3%), 여가중심형(21.5%), 개인유지중심형(14.3%) 순으로 나타났고, 일요일에는 개인유지형(31.3%)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균형형(28.4%), 일중심형(21.7%), 여가중심형(18.6%)의 순서를 보였다.

셋째, 농가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일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취업 여부, 개인월평균소득 모두였고, 일요일에는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넷째, 농가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는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요일과 관계없이 일중심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며, 시간사용만족도의 경우 평일에는 개인유지중심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낮았고 일요일에는 균형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농가노인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중심형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농가노인은 요일에 따라 균형형(평일) 또는 개인유지형(일요일)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고 일요일의 시간사용만족도에 있어 비농가노인의 경우 유형별 차이가 없으나 농가노인의 경우 균형형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다. 노인의 노동이 시간부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지만 시간사용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걱정수준의 노동이 농가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농가노인의 경우 노동중심형과 여가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모두 높지 않은 점에서 지나친 노동에 따른 여가부족문제의 해결과 함께 여가시간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농가노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농가노인과 비농가노인의 생활시간분석에 대한 심층적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